

3·1운동과 국내 독립운동

박 걸 순*

국문초록

3·1운동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커다란 분수령이자 독립운동의 호수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3·1운동이 1910년대 비밀결사 투쟁의 세류를 모아 1920년 이후 총체적 독립운동이라는 대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3·1운동은 독립운동 참여 계층을 확대하고 이념과 방법론을 다양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3·1운동은 한국독립운동사의 최고봉이었다. 따라서 그 이후의 독립운동은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독립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방식이나, 국제정세의 변동 등 외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3·1운동은 우리의 힘으로 독립운동의 지형도를 바꾼 획기적인 것이었다.

국내의 독립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방식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전개되었다. 일제의 공포적 무단통치기에는 철저한 비밀결사의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었고, 기만적 문화정치기에는 일제가 허용하는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였다. 일제의 만주침략과 중일전쟁, 세계대전 도발 등 침략전쟁이 확대 강화되며 한민족에 대한 탄압이 더욱 기승을 부리자 독립운동은 다시 지하화 하되, 일제 패망을 예견하며 광복 이후를 구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꾸준히 국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계를 추구하였다.

일제의 직접 통치하에 놓여 있던 국내의 독립운동은 국외의 독립운동과는 커다란 조건의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립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총력적으로 전개되었다. 운동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농민·노동자·학생·청년·여성운동으로, 운동 계열을 기준으로 하면 사회운동·경제운동·문화운동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세분화하면 사회운동에는 여성운동과 형평운동이, 경제운동에는 물산장려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 문화운동에는 국학·언론·교육·예술·종교운동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운동 주체나 계열은 독자적인 영역을 지니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국내 독립운동의 양상이 복합성을 지니는 것은 이념의 다원성과, 방법과 전략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3·1운동 이후 부단히 전개된 국내 독립운동은 국외 독립운동과 연계를 시도하였으며, 결국 독립을 쟁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주제어] 3·1운동, 국내 독립운동, 비밀결사, 민족협동전선, 문화운동, 학생운동, 건국동맹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gspark@cbnu.ac.kr

II. 독립운동의 호수 3·1운동

1. 3·1운동의 대중화와 비밀결사

3·1운동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커다란 분수령으로서 독립운동의 호수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3·1운동이 1910년대 비밀결사 투쟁의 세류를 모아 1920년 이후 총체적 독립운동이라는 대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3·1운동은 독립운동 참여 계층을 확대하고 이념과 방법론을 다양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국 강점 직전인 1910년 7월 11일, 경무총장 明石元二郎이 헌병대사령부에서 지방 헌병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훈시에는 비밀결사의 발생과 투쟁에 대한 경계심이 잘 나타나 있다.³⁾ 그의 우려는 적중하였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비밀결사 투쟁은 전 시기를 망라하고 있지만, 특히 1910년대 독립운동의 특징으로 평가된다. 1910년대의 비밀결사는 대한광복회와 조선국민회의 비교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의병과 구국계몽운동의 양대 계열의 정신과 방법론을 계승하여 폭압적 무단통치기를 견디며 독립을 모색하였다.

3·1운동이 대중 봉기로 확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910년대 비밀결사의 전통을 계승한 각지 비밀결사의 활동 때문이었다. 이른바 민족대표들은 초기 계획과 독립선언식만을 주도하고 일제에 자수함으로써 스스로 민중과의 가교를 단절하고 대중화의 노력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 간극을 메우고 만세시위의 대중화의 길을 연 것은 각지의 비밀결사였다.

3·1운동기에 등장한 비밀결사로는 3·1운동 참가 경험이 있는 朴仁錫 등이 조직하여 獨立歌를 인쇄하여 배부한 京城獨立秘密團, 서울에서 귀향한 睦致淑 등 기독교도들이 4월 14일의 고흥 장날 시위를 주도하기 위해 조직하여 태극기를 제작한 朝鮮獨立高興團, 전남 순천에서 李秉琛 등이 문인들의 친목계를 표방하고 조직하여 4월 9일과 14일의 별교 장터 시위를 주도한 桃蘭社(契), 경기도 부천에서 趙明元 등이 조직하여 4월 28일의 관청 장터 시위를 주도한 血誠團, 함북 이원에서 李道在 등 천도교도들이 조직하여 3월 10일 이원 장터 만세시위를 주도한 朝鮮獨立團 利原支團, 孟義燮 등 기존 청년단이 비밀결사로 전환하여 3월 30일 조치원 장터 만세시위를 주도한 鳥致院青年團, 고종의 인산에 참배하고 귀향한 朴致珉 등이 개성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기 위하여 취지서를 돌리고 회원을 모집한 朝鮮獨立開城會 등이 있다.

3·1운동기 비밀결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은 曄星團이다. 曄星團은 金壽吉 등 啓聖學校 학생들이 3월 8일의 대구 시위 참여를 시작으로 2개월 동안 시위 주도, 선언서 배부, 자금 모금, 조선인 관공리에게 사직 권고문 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들은 본부를 대구에 두되, 서울과 만주에 동지를 파견하여 그곳의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비록 조직

3)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미수지書房, 1966, pp. xi~xii.

과 실체는 없었지만 大韓獨立會(團), 大韓獨立同盟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만세시위 참여를 촉구한 가공의 단체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투쟁 방법론은 3·1운동이라는 독특한 독립 운동에 맞춘 것으로서, 만세시위의 지역적 종료와 함께 해체되는 단기적이고 일과성을 지닌다.⁴⁾

그러나 3·1운동 직후 비밀결사들은 만세시위의 범위를 넘어서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확대 발전시켜 나갔다. 이들은 3·1운동의 열기를 모아 전국 규모로 조직을 확대하였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각 단체 간 통합과 연대를 모색하였다. 또한 이들은 3·1운동의 교훈을 반성적으로 반추하며 점차 비무장투쟁에서 의열이나 무장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농민 조직이 별도로 조직되는 등 중산층적 부르주아 민족주의 성향에서 벗어나 민중적 성향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⁵⁾

이로써 1920년대 이후 다양하고 총력적 투쟁이 전개될 수 있었다. 당시 국내 비밀결사가 수행한 역할과 활동은 일제하에서 합법화 될 수 없는 ‘직접적 독립운동’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다.⁶⁾

2.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지대하다.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피지배 약소민족 가운데 최초로 민족해방투쟁에 나선 선구적인 투쟁으로서, 1919년 여름 이후 전 세계에서 전개된 피압박 민족 해방투쟁에 영향을 끼쳤다.⁷⁾ 또한 3·1운동은 한민족의 독립운동이었지만 폐쇄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인류의 보편적 진리에 접근하려는 세계화의 선구적 사상을 실천한 세계성을 지닌다.⁸⁾

3·1운동이 국내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도 매우 크다. 그 결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만주와 연해주 독립군 무장투쟁이 강화되며 국내의 독립운동도 그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먼저 3·1운동이 당시 국내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은 일제의 포악한 무단통치를 붕괴시켰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에는 일제의 가혹한 무단통치가 ‘宗教一同 社會一團 貴族 學生 凡高等貴族이 共手로 義旗를 揭’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진실로 水는 壅으로 必潰하고 草는 踏으로 還生한다’고 확신하였다.⁹⁾ 일제는 자신들의 한국 강점과 식민지 지배가 영속될 것으로 확신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3·1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오판을 반성하고 이른바 문화정치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저들의 대책을 궁하게 만들어 전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게 한다’면 완전 독립도 또한 빠를 것이다’라고 예견한 박은식의 지적처럼 우리의 독립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이다.¹⁰⁾

4) 박길순, 「3·1運動期 國內 秘密結社運動에 대한 試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1988, pp.167~200.

5) 張錫興, 「1920년대 초 國內 秘密結社運動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집, 1993, pp.245~277.

6) 慎鍾廈, 『日帝強占期 韓國民族史(上)』,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451~472.

7) 慎鍾廈, 「三·一運動의 社會史(下)」, 『韓國學報』 제31집, 1993, pp.172~179.

8) 이만열, 「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 『지역과 역사』 제16호, 부경역사연구소, 2005, p.14.

9) 국사편찬위원회, 『韓日關係史料集』(『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 2005, p.171).

또한 3·1운동은 이전부터 진행된 독립운동을 계승하여 무단통치기에 침체된 독립운동을 부활시키고 더욱 강력하게 전개되는 전기를 만들었다. 일제의 폭압적 무단통치로 말미암아 1917~1918년을 전후하여 많은 비밀결사들이 해체되고 있었지만, 의병사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다. 곧 의병은 사회산이 아니라 휴화산으로서 언제든지 활화산으로 폭발할 잠재력으로 존재했던 것이며, 그 잠재력은 3·1운동 형성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¹¹⁾ 3·1운동이 의병과 의열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전개되었음은 이미 당시부터 강조된 사실이었다.¹²⁾

3·1운동은 우리 스스로에게 독립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이는 3·1운동이 쟁취한 중요한 소득이었다. 식민주의가 끼친 최대 죄악 중의 하나는 식민지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상실케 하는 일이었다. 3·1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로 인해 자칫 좌절되어 불가능할 것 같은 민족독립운동을 가능한 세계로 바꾼 것이었다.¹³⁾

3·1운동은 이후 6·10만세운동이나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연계되며 독립운동의 유력한 방법론으로 계승되었다.¹⁴⁾ 또한 전 민족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저변이 확대되어 총력 항쟁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제는 소수의 선각자나 애국지사에 의한 개별적 독립운동이 아니라 전 민족적 항쟁으로 발전한 것이다. 박은식은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삼일 선언 이후에 우리 민족이 남녀노소가 없이 내외와 원근이 없이 전체의 활동이 일치하여 끓는 물에 뛰어들고 불을 밟고 만 번 죽어도 사양하지 않았다. 지난번에 이토를 총격한 자가 안중근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몇 백 명의 안중근이 나왔다. 지난번에 이완용을 칼로 찌른 자가 이재명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몇 천 명의 이재명이 나왔다. ……”¹⁵⁾

『한일관계사료집』에는 3·1운동에 참가한 군중을 ‘獨立軍’이라 표현하였다.¹⁶⁾ 이는 3·1운동을 보는 임시정부의 관점을 대변하며, 이후 전 민족이 ‘독립군’이 되어 각 분야에서 투쟁할 것을 기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3·1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는 물꼬를 텄다. 이제 ‘獨立運動의 民衆化’ 시대가 열린 것이다.¹⁸⁾

3·1운동은 농민과 노동자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지위를 향상시켜 주었다. 농민층의 주체적 역량은 3·1운동의 대중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농민들은 이를 통해 성장한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10) 朴殷植, 『白巖朴殷植全集』 제2권, 동방미디어, 2002, p.426.

11) 趙東杰,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 pp.441~455.

12) 朴殷植, 『白巖朴殷植全集』 제2권, pp.673~674.

13) 朴殷植, 『白巖朴殷植全集』 제2권, p.426.

14) 張錫興, 「3·1운동과 국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3집, 1999, pp.243~267.

15) 朴殷植, 『白巖朴殷植全集』 제2권, p.674.

16) 國史편찬위원회, 『韓日關係史料集』(『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 2005, pp.193~195.

17) 朴鎭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서 편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하)』, 국가보훈처, 1999, p.426. 한편 일본인이 한복으로 변장하고 시위 군중에 합류하여 행패를 부린 행위를 ‘反獨立軍’이라 표현하였다.

18) K. S, 「獨立運動의 民衆化」, 『獨立新聞』 1922년 9월 30일.

로 1920년대 이래 더욱 농민운동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3·1운동은 농민운동의 건곤일척으로 파악되기도 한다.¹⁹⁾ 일제의 식민지 노동 입법이 3·1운동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유화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도 노동자 계층의 성장과 연계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²⁰⁾

그런데 3·1운동이 이후 민족사에 끼친 가장 중요한 영향은 민주공화정 이념을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의 중추기구가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이 되었다는 점이다. 독립운동 세력들은 1910년의 경술국치는 융희황제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묵시적으로 선포한 것이므로 '新韓'을 통치할 특권과 大統 상속의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였다.²¹⁾ 고종의 폭봉이 3·1운동 대중화의 한 요인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3·1운동 지도자들에게 고종의 拜別은 '나이가 많으면 죽는 것으로 특별한 감상은 없는 것'이었다.²²⁾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國民의 信任'과 '全 國民의 委任을 受하여 組織'되었음을 천명하였다.²³⁾ 이는 3·1운동이 민중의 힘으로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통성과 법통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까닭이다.²⁴⁾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이 꾸준히 임시정부와 연계하거나, 군자금을 지원했던 것은 그 정통성을 인정한 결과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 기점은 1919년이지 1948년이 될 수 없는 것이다.²⁵⁾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뿐 아니라 독립운동사 전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부당한 일이다.

Ⅲ. 1920년대의 민족총력항쟁

1.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²⁶⁾

일제의 이른바 문화정치의 시행은 국내 독립운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는 민족주의 계열이 재결집과 분화를 반복하였고,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어 민족운동과 연결되었으며, 농민·노동 등 계층운동이 전개되며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이 심화되어 갔다.

1920년대 전반기 민족주의 진영의 운동은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문화운동으로 시작하였다. 신채

19) 김용달, 「일제의 농업정책과 농민운동」, 『東洋學』 제41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pp.272~273.

20) 김경일, 「일제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東洋學』 제41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p.287.

21) 「大同團結宣言」(1917).

22) 「孫秉熙 피고인 신문조서」, 1919. 3. 7,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p.81) 및 「權東鎮 피의자 신문조서」, 1919. 3. 10, 경무총감부(『三一運動秘史』, p.184) 등.

23) 「大韓民國臨時憲章(1919. 4. 11)」(韓詩俊 編, 『大韓民國臨時政府法令集』, 국가보훈처, 1999, pp.41~42).

24) 金喜坤, 「3·1운동과 민주공화제 수립의 세계사적 의의」,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8집, 2009, pp.12~22.

25) 韓詩俊, 「대한민국 '건국 60년', 그 역사적 모순과 왜곡」,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6집, 2008, pp.236~255.

26) 일제 강점기의 민족운동을 민족주의(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하거나, 민족주의를 좌·우파로 구분하는 방법이 실제 민족운동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 방법에 따라 논의하기로 한다.

호는 문화운동을 ‘일제의 강도정치에 기생하려는 주의를 지닌 자’로서 우리의 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나아가 그는 일제에의 저항이 전제되지 않은 문화 발전은 도리어 조선의 불행이라고까지 말하였다.²⁷⁾ 이는 일제하 문화운동이 지니는 양면성을 경계한 것이었다.²⁸⁾

1920년대 민족운동으로서 문화운동의 양대 지주는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 설립운동이었다. 1923년 1월 창립된 조선물산장려회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활동지침은 이 운동의 방향성을 가늠케 한다.²⁹⁾ 그러나 이 운동에는 토산 장려론과, 이와는 궁극적 방향이 다른 생산 증식론을 주장하는 두개의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 세력의 분화를 예견할 수 있었다.³⁰⁾ 이는 정성방직이 조선총독부의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민족운동 노선으로부터 이탈하는 민족주의 진영의 분화로 나타났다.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일제에 의한 정치·경제적 예측을 당장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學의 獨立’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추진된 운동이었다.³¹⁾ 당시 이 운동은 ‘민중 문화의 선구’, ‘최초의 가장 큰 민중운동’, ‘우리 민족의 생명운동이요 문화운동’으로 여겨졌다.³²⁾ 1922년 1월 조선민립대학기성준비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여 1923년 5월경에는 전국에 230여개의 지방부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다.³³⁾

부르주아 민족주의 진영의 분화는 이광수의 「民族的 經綸」(1924) 발표로 구체화하였다. 이광수는 이 글을 통해 합법적 정치결사를 조직하여 총독부와 타협적 자치운동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민족주의 우파 세력의 자치운동 단체인 研政會 결성을 타진하였던 것이다. 반면,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 진영이 조직을 결집해 나가자 민족주의 진영은 두 개의 단체를 조직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1925년 9월 김기전, 홍명희 등 26명이 조직한 조선사정조사연구회였다. 또 하나는 이해 11월 민족주의 좌파와 우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결성한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였다. 이는 그 때까지만 하여도 민족주의 진영의 분화가 명확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1925년 말 자치론이 다시 대두하며 상황은 변하였다. 동아일보의 송진우, 김성수 등과 최린은 수차 회합을 갖고 자치운동으로의 방향 전환에 대해 협의하였다. 당시 천도교 신파와 동아일보, 안창호의 국내 기반인 수양동우회, 천도교 신파 세력 산하의 조선농민사 등이 자치운동의 잠재

27) 申采浩, 「朝鮮革命宣言」, 『단재신채호전집』 제8권,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8, p.894.

28) 趙東杰, 「丹齋 申采浩의 삶과 遺訓」, 『韓國史學史學報』 3, 2001, p.195.

29) 이 때 채택된 활동 지침은 ① 조선인의 산업적 지능을 계발 단련하여 실업에 입각하게 하는 산업 장려, ② 조선인의 상품을 애용 撫育하여 조선인의 산업을 융성하게 하는 산업 장려, ③ 조선인의 생활 및 기타에 관하여 경제적으로 건설 또는 개선할 바 일반사항을 조기 강구하여 그 실현을 지도 관철하는 경제적 지도 등이었다.

30) 이균영, 「192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1994, p.408.

31) 『東亞日報』 1922년 2월 3일자.

32) 『東亞日報』 1922년 2월 23일자. 『朝鮮日報』도 사실을 통해 ‘사람으로서 가치 표명’을 위해 민립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922년 12월 1일 및 2일자).

33) 盧榮澤, 「民立大學 設立運動 研究」, 『國史館論叢』 제11집, 1990, pp.88~94.

적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1926년 3월,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姜達永과 천도교 구파 권동진, 조선일보의 안재홍 등 8명이 민족협동전선을 논의하였는데, 1926년 말 다시 우파의 자치운동 부활 기도가 있자,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가 합류하여 신간회를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³⁴⁾

2.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1920년대의 국내 독립운동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사회주의가 수용되고 많은 사상단체들이 조직되어, 농민·노동·청년·신간회·여성·형평 등 민족운동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 사실이다. 이른바 ‘혁명적 민족주의 좌파’에서 상당수의 사회주의자들이 출현한 것은 식민지 사회주의 운동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며, 한말 이래 민족운동이 조직이나 이념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³⁵⁾

3·1운동 이후 1920년 노동공제회 등 노동단체가 결성되었고, 사상단체로서 1921년 서울청년회, 1922년 무산자동지회, 1923년 신사상연구회, 1924년 화요회, 1924년 북풍회 등이 조직되었다. 이 같은 사상단체들은 변화무쌍한 분파가 있었으나, 1925년 조선공산당(이하 조공)의 결성으로 사회주의 운동은 본격화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서 1925년은 중요한 전기가 되는 해이다. 이 해 4월 조공이 결성되었고, 북풍회·화요회·조선노동당·무산자동맹 등 4개 사상단체가 전선 통일을 위해 4단체 합동위를 결성하고 이듬해 1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협동전선을 결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조공은 17개의 당면문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완전한 타도와 조선의 완전한 독립’, ‘민족개량주의자와 투기주의자의 기만 폭로’, ‘언론·집회·결사의 자유와 노예교육 박멸’, ‘중국 노동혁명의 지지와 소비에트 연방 옹호’, ‘동양척식회사, 일본 이민, 군농회 철폐’, ‘8시간 노동제 실시, 최저 임금제 제정’ 등이었다. 그러나 1925년 신의주사건으로 조공 조직이 파괴되고, 제2차 조공(1925. 11~1926. 6)이 조직되었는데, 제2차 조공은 주요 정책 목적을 민족협동전선 결성에 두었다.³⁶⁾ 1926년 7월에 발표한 ‘조선공산당선언’은 프롤레타리아의 해게모니를 유보할 정도로 민족통일전선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였음을 알려준다.³⁷⁾ 조공이 주도한 6·10만세운동의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대한독립당도 그 연장선상에서 구상한 것이었다. 6·10만세운동은 3·1운동처럼 대규모 시위를 계획한 것으로, 국내 독립운동의 특징의 하나로 이해되는 것이다.³⁸⁾ 6·10만세운동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면서 실패로 그쳤으나, 민족주의의 개량화와 사회주의의 국제화

34) 이균영, 「192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1994, pp.409~410.

35) 李浚植, 「사회주의 민족운동과 대한민국 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8집, 2009, pp.31~32.

36) 김호일, 「1920년대 독립운동의 양상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총론편 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pp.442~443.

37) 임경석, 「일제하 공산주의자들의 국가건설론」, 『대동문화연구』 제27집, 1992, p.214.

38) 신용하, 「한국 국내 민족독립운동의 특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집, 1993, p.427.

에 대한 반성으로써 새로운 분기점을 이루며 민족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³⁹⁾

1926년 11월 정우회선언이 발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 일시적, 동맹자적 성격을 인정하여 제휴하여야 한다는 것, 경제적 투쟁에서 계급적·대중적·의식적인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선언은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에 참가하는 사상적 배경으로 이해된다.⁴⁰⁾

1920년대 후반에 오며 조공의 핵심은 지식계급과 학생의 결합이었고 정작 노동자와 농민은 소수만이 참여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조공은 '지식인 공산당'이었고 분열과 파쟁의 장소였다. 그러므로 코민테른이 인텔리 중심의 당을 해체하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당의 재조직을 지령했지만 제4차 조공의 후속은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재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⁴¹⁾

1920년대의 사회주의 운동은 다방면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를 밝히는 것은 부문별 운동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 사실을 검출해 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의 농민운동이나 노동자운동이 경제 권의 투쟁으로부터 1930년에 오며 혁명적 농민조합이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으로 발전해 갈 수 있었던 것도 3·1운동 이후 농민과 노동자의 계급의식 고취와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3. 민족협동전선과 신간회

1920년대 특징적 민족운동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민족유일당운동이다. 이는 독립운동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외에서는 모두 실패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신간회의 조직을 탄생시킴으로서 성공을 거두었다.

3·1운동 후 독립운동 전열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분열하였다. 그런데 분열을 전후한 시기, 민족주의 우파 계열은 민족운동이 사회주의 운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개량적이라는 것도 반드시 혁명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나아가 식민지 조선 현실에서 민족적 운동과 사회운동이 배치한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편견 아니면 감정론이라고 하여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일정한 이해를 넘어 자신들과의 동질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⁴²⁾ 그러나 그들의 대동단결론은 사실은 사회주의운동의 독자적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민족주의 좌파들이 사회주의 운동이 민족운동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그들 계열의 존재를 인정하고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자 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⁴³⁾

39) 장석흥, 『6·10만세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3~16.

40) 이균영, 「192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1994, p.413.

41) 김호일, 「1920년대 독립운동의 양상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 사전』, 1996, pp.443~444.

42) 「2대 해방운동의 일치점 -주의적 운동과 민족적 운동」, 『東亞日報』 1923년 8월 1일자 사설.

43) 金明久, 「1920년대 국내 부르주아 민족운동 우파 계열의 민족운동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0집, 2002, pp.

1920년대 중반부터 민족주의 세력이 분화한 것은 독립운동 주체라는 면에서 볼 때 시민계층의 분화였다. 이제 독립운동선상에서 개량주의자나 타협적 민족주의자나 시민계층은 이탈한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비타협적 시민계층은 민중과 공통분모를 공유할 수 있었고 합류가 시도될 수 있었다. 그것이 곧 신간회였고, 자작농까지 포함하는 농민조합의 특성이었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성격으로 이해되는 것이다.⁴⁴⁾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계열은 國民代表會와 國民黨 결성 계획 등 두 진영의 합동이나 연합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그러던 1926년 권오설 등 제2차 조공과 천도교 구파가 민족협동전선을 수립하여 6·10만세운동을 추진하였고, 다시 양자가 朝鮮民興會를 발기하였다. 그리고 정우회 선언에서 民族革命唯一戰線을 촉구함으로써 드디어 1927년 2월 15일 '眞純한 民族黨'으로서 신간회가 결성되는 구체적 계기를 만들기에 이른 것이다.⁴⁵⁾

신간회는 전국에 120~150여개의 지회를 지니고 있었고, 2~4만의 회원을 보유한 일제 강점기 최대의 항일사회운동단체였다.⁴⁶⁾ 신간회의 존재는 그 자체도 커다란 의미를 지니지만, 중앙본부와 지회들이 전개한 민족운동은 국내 민족운동을 고취하고 크게 고양하였다. 1929년의 광주학생독립운동이나 원산노동쟁의, 용천소작쟁의 때에는 신간회의 개입과 활동으로 전국적 독립운동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었고, 노동운동·농민운동·여성운동 등 사회운동을 보호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였다.⁴⁷⁾

그러나 신간회는 1931년 해소되었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이 코민테른과 프로핀테른의 지시와 영향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국제주의 형식 논리가 민족의 모순에 앞서 작용하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해소 이후 국내에서는 그 어떤 전국적 조직을 만들지 못한 것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반면, 국외의 민족유일당이나 민족단일당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신간회의 유산은 신민족주의나 삼균주의의 이념으로, 정당정치구현으로, 연합전선의 형성으로 전승되어 8·15를 맞이하였다.⁴⁸⁾ 그러나 민족 분단의 현실은 신간회의 교훈이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서 효용성을 지닌 것이란 사실을 일깨워준다.

4. 국내 무장투쟁의 전개

3·1운동의 영향으로 만주와 노령 등 국외에서의 독립군 조직이 정비되어 강화되어 항일무장투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가능하였으며, 일부 독립군들은 국경지방

173~177.

44) 趙東杰, 「獨立運動의 理解와 論理」, 『韓國近代史의 試鍊과 反省』, 지식산업사, 1989, p.58.

45) 姜德相 編, 「秘密結社新幹黨組織計劃ノ内容」, 『現代史資料』 29, みすず書房, 1966, p.95.

46)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p.17.

47)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321~322.

48) 조동길,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195.

에서 국내 진공까지 가능하게 되었다.⁴⁹⁾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3·1운동 직후 국외 무장투쟁단체의 조직과 정비는 주목하였으나, 국내를 근거로 한 무장투쟁 단체의 존재와 활동에 대하여는 거의 논외로 한 것이다.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3월, 3·1운동의 열기를 되살리고 비폭력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평북지방에서 天摩山隊와 普合團이라는 무장 단체가 조직되어 활발한 투쟁을 벌였다.⁵⁰⁾ 천마산대는 평북 의주·삭주·초산·강계 등지를 근거로 대대를 단위로 3개 소대로 구성되었다. 대원은 4·50명~200명에 달하였으며, 다수의 구한국 군인들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천마산대는 1920년 3월부터 1923년 2월경까지 약 3년간에 걸쳐 군자금 모금, 순사주재소·면사무소·우편소 등 식민지 통치기구의 습격 파괴, 친일 관리와 일본 헌병과 경찰 처단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일제에 의해 천마산이 포위당하자, 5~6차례 근거지를 옮기며 투쟁하였다.

천마산대 대대장(사령장)인 崔時興은 3·1운동을 주도하였다가 도망하였고, 귀국 후 천마산대를 조직하였다가 광복군사령부를 거쳐 대한통의부와 참의부의 중대장을 역임하였다. 특히 최시흥 뿐만 아니라 천마산대 소속 대원들은 최시흥과 함께 대한통의부 의용군 제3중대와 참의부 제3중대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참의부에서는 제3, 4소대장과 훈련대장을 천마산대 간부들이 이끌면서 기간무력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천마산대는 3·1운동 이후 국내 무장투쟁단체의 추이 양상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⁵¹⁾

보합단도 3·1운동 직후 만주지역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하며 국내에서 조직된 대표적 무장투쟁 단체였다. 金東植은 만주에 있는 大韓獨立團과 투쟁 방법을 상의한 후 귀국하여 1920년 3월 보합단의 선행 조직인 大朝鮮靑年決死隊를 조직하였는데, 이후 보합단으로 개칭하고 평북 일원을 무대로 혈연과 지연을 배경으로 20대를 주축으로 하는 50여명의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보합단은 식민지 통치기구의 습격과 파괴, 친일 부일배와 순사의 처단, 일제와 교전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어 천마산대와 함께 전형적인 무장투쟁 단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김동식이나 백운기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었고, 단원 중에는 교원·의사·신문기자 등 다수의 지식층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보합단의 경우, 40여 차례에 걸친 군자금 모금 활동이 보이는데, 모금 자금을 3~4차례 임시정부로 송금하고 있어 임시정부 지원단체로 이해된다. 또한 보합단은 1920년 9월, 서울에서 이종영 등이 조직한 무장계획단과 연계 투쟁을 시도하다가 이른바 雲泥洞事件으로 일제에 발각되자 중국 관전현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보합단은 대한독립단, 광복군사령부, 광복군총영, 대한통의부에 참여하고 있다.

천마산대와 보합단은 3·1운동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조직된 무장투쟁 단체로서 근거지와 투쟁 내

49) 이만열, 「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 p.12; 慎鍾廈, 「三·一運動의 社會史(下)」, pp.172~179.

50) 박걸순, 「1920년대 초 국내 무장투쟁단체의 활동과 추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1989, pp.281~315.

51) 박걸순, 「大韓統義府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집, 1990, 참조.

용 등이 유사하며, 서간도 독립군단 통합운동에 중요한 단체로서 참여하였다. 따라서 3·1운동 직후 무장투쟁을 논의할 때 만주지역의 독립군 조직과 함께 국내의 한중 접경지대에서 조직되어 활발한 투쟁을 벌인 천마산대와 보합단을 반드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즉, 만주 독립군 조직의 정비와 강화에 국내적 기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주로 군자금 모금을 위해 무장하고 활동한 소규모 조직으로서 暗殺團 등의 단체도 있었으나, 상세한 조직과 활동상은 알 수 없다.⁵²⁾

IV. 1930·40년대 독립운동의 발전

1. 혁명적 조합운동

1930년대에는 독립운동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통합 조직이 없었다.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정당 조직이 구심점을 이루었으나, 국내에서는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전반적으로 독립운동이 침체되었다. 1920년대의 국내 독립운동을 계승한 조직은 농민운동·노동운동·학생운동뿐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국내 독립운동에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대두하였으며, 풍부한 내용을 지니고 발전적 양상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

1930년대의 국내 독립운동은 사회주의운동선상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국제주의에 따른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혁명성을 지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20년대의 농민 노동운동 단체들이 합법적 단체가 많은 반면, 1930년대의 그것들은 비합법적이고 혁명적인 조합운동으로 발전해갔다. 1920년대 후반 이후 농민운동의 주체가 소작인회에서 농민조합으로 바뀌고, 쟁의 상대가 지주에서 식민지 권력으로 확대되며 1930년대에 들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인다.⁵³⁾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특징은 종전에 합법주의에 매몰된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비합법적 투쟁을 전개하였고, 개량적 농민운동을 분쇄하고자 하였으며, 자신들의 운동을 공산주의 운동이나 당재건운동과 결합시키려 한 점이다.⁵⁴⁾

그런데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사회운동으로서의 경제투쟁을 넘어 식민지 체제를 타파하려는 정치투쟁과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소작료 불납과 경작 거부 등 통상적 경제투쟁과 함께, 면·군 단위의 일제기관 습격과 무력투쟁을 동반하는 독립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⁵⁵⁾

52) 慎鍾廈, 『日帝強占期 韓國民族史(上)』,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451~472.

53) 趙東杰, 「1930년대의 국내독립운동」, 『韓國民族主義의 發展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93, p.294.

54) 지수걸, 『1930년대 朝鮮의 農民組合運動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0, p.89.

55) 김영범, 「1930년대 독립운동의 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1994, pp.440~441.

노동운동도 농민운동과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 1920년대 중반 이후 1930년대 전반기에 걸쳐서 합법적 노동조합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혁명적 조류와, 개량주의나 기회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합법적 노동운동이 모두 개량주의로 비판받을 것은 아니나, 1929년의 원산총파업과 1930년의 신흥탄광과 평양고무노동자들의 파업이 개량주의로 비판되며, 이후의 노동운동은 혁명적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을 보인다.⁵⁶⁾

1930년대 이후 노동운동은 일제의 침략이 확대되고 병참기지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지역과 함경도가 중심지였고, ML계의 李載裕 그룹과 화요파의 權榮台 그룹이 혁명적 노동조합의 실상을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이다.⁵⁷⁾

혁명적 노동조합의 주도로 진행된 투쟁 가운데 폭력적 양상은 반제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과 잠재성은 지니고 있었으나, 계급문제를 민족문제 보다 우선한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즉, 계급해방론이 사회운동의 중심개념으로 부상한 것은 민족주의보다 국제주의가 상위 개념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으로서, 맹목적이고 형식적 국제주의는 독립운동사에서 반성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⁵⁸⁾

그러나 혁명적 농민·노동운동은 1937년을 전후하여 침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소작쟁의가 감소하고 노동쟁의는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일제의 중일전쟁 도발과 식민지 통제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고, 해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계가 끊어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2. 문화운동과 국학 민족주의

1930년대는 정신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일제에 대한 반발로 민족의식의 폭과 심도가 한층 확대 심화된 시기였다. 1930년대 전반기에 학계가 정비·발전되고 문화운동이 치성한 점은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 양상으로 파악된다.⁵⁹⁾ 그 가운데 국어학·국문학·역사학은 ‘國學民族主義’에 기초한 문화운동의 핵심적 분야라 할 수 있다.⁶⁰⁾

문화운동은 일제에의 저항성과 독립운동에의 기여 여부를 기준할 때 평가가 상반될 수 있다.⁶¹⁾ 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니지 않고 단순히 기회주의적 실력양성운동의 성격만 지닌 문화운동일 경우, 자의적이든 그렇지 않은 일제의 민족말살 계략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 시기의 문화운동은 한민족말살을 획책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대항하여 민족 보전을 추구한

56)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 비평사, 1992, pp.511~515.

57) 김영범, 「1930년대 독립운동의 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1994, p.441.

58) 趙東杰, 「1930년대의 국내독립운동」,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1993, pp.300~301.

59) 1930년대의 國學 발전에 대하여는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民族文化研究』 第12號(1930년대의 國學振興運動 特輯號, 1977) 참조.

60) 최기영, 「일제강점기 國學的 발달」, 『식민지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 한울 아카데미, 2003, pp.11~67.

61) 趙東杰, 「1930·40년대의 국학과 민족주의」, 『人文科學研究』 趙東杰, 同德女子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95, p.126.

것이였다. 또한 정치투쟁이 좌절되자 그 한계를 경험한 독립운동계가 문화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안재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신간회 해소를 반대하였고, 해소 직후 새로운 전 민중적 표현단체와 결사체의 조직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정치투쟁에 절망하고 역사 연구로 민족운동의 방향을 선회하고 朝鮮學運動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조선학운동은 운동의 실체적 양상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소극적이었던 학계의 경향으로 인해 독립운동사에서 간과되거나, 매우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선학운동은 이 같은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주창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학운동은 운동사 보다는 학술사적으로 접근하고 조명되어야 할 ‘조선연구의 기운’이었다.⁶²⁾

일제 강점기 국학자들의 학문적 영역은 다변적이였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국어학과 국문학은 물론 국사학의 영역을 넘나들었다. 권덕규, 안확, 문일평, 계봉우 등은 그 대표적 인물이라 하겠다. 신채호, 정인보, 안재홍 등도 예외는 아니며, 심지어 유물론사가인 백남운도 사회경제사의 해석에서 어의를 중시하였다. 유인식이 통사인 『大東史』를 저술하는 한편, 문학사라 할 수 있는 『大東詩史』를 저술한 것은 역사나 시나 모두가 민족정신과 국수를 발양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⁶³⁾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학문적 영역을 엄격히 구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진단학회가 국학연구를 표방하였을 때, 여기에 다양한 부류의 학자가 참여한 것도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국학자의 학문적 영역이 모호하고 다변적이었던 것은 당시 학문이 독립적 체계를 갖지 못한 단계였기 때문일 것이나, 그보다는 민족보전이라는 국학민족주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국학운동은 지나치게 학문적 잣대로만 따져서는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국학민족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어문민족주의와 역사민족주의는 운동성과 실천성을 지닌 강렬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국학자들은 학자인 동시에 독립운동가였다. 최남선처럼 학자의 길만을 고집하다가 꺾절한 인사가 있었으나, 많은 국학자들은 지행합일이 요구되는 시대적 의무와 민족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혹독한 상황에서 한글맞춤법을 제정하고 국어사전을 만들었으며 한글보급운동을 펼쳤다. 또한 문학과 소설사 등을 정리하고, 저항문학을 발달시켰으며 출판법과 신문지법 등 식민지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에도 나섰다. 요컨대 일제 강점기 어문과 역사민족주의를 통해 민족을 보전하고자 한 국학운동이 지닌 특징과 한계는 그 상대적 조건인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62) 박길순, 『국학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10~13.

63) 박길순, 『東山 柳寅植의 歷史認識』, 『植民地 시기의 歷史學과 歷史認識』, 경인문화사, 2004, pp.238~240.

3. 학생운동과 비밀결사

3·1운동과 6·10만세운동으로 역량을 성장시킨 학생운동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절정을 맞이하였고, 1930년대 이후 국내 독립운동의 전위대 역할을 하였다. 학생운동은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의 양면성을 지니며, 비밀 지하조직으로서 결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1929년 11월 시작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이듬해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이전의 단순한 동맹휴교와는 달리 식민지 교육 타도와 민족해방을 외쳤다. 당시 학생들의 운동은 고양된 대중투쟁과 궤를 같이 하였으며, 대중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⁶⁴⁾ 신채호가 3·1운동 이후 문예운동이 현저히 발달한 결과 新詩와 新小說이 성행하여 학생사회가 ‘沉寂’해졌다고 비판하였으나,⁶⁵⁾ 이는 1920년대 전반기의 부분적 현상을 지적한 것이었다.

1930년대 들어 학생단체는 지하 비밀 조직화하였다. 이는 농민, 노동운동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학생운동은 독서회, 반제동맹 등 15~20명의 소수 학생들로 구성된 비밀결사가 조공재건운동이나 여타 부문의 사회운동과 결합하여 ‘비합법적’인 맹휴나 반전운동을 벌이는 사회운동의 형태로 전개되기도 하였다.⁶⁶⁾

일제는 자신들의 만주침략이 조선 내 반제 반전운동을 자극하여 조공 재건과 학생층의 반제 비밀결사 조직에 영향을 끼쳤다고 파악하였다.⁶⁷⁾ 실제로 1930년대에 학생 비밀결사가 90개 정도 조직되었다. 그들의 명칭도 赤光會·赤友會·學生前衛同盟後繼組織·赤旗會·反帝前衛同盟·共產青年學生會·讀書會反帝班·ML·赤色突擊隊·社會科學研究會·反帝同盟 등 사회주의 연구나 좌익적 색채를 농후하게 표방하고 반제를 목표로 내세웠다. 일부 단체는 민족운동과 비밀결사를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⁶⁸⁾ 그런데 1930년대 학생 비밀결사의 구성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은 학생층의 민족적 역량이 축적됨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⁶⁹⁾ 그런데 1930년대 후반 들어 학생 조직은 민족적 반성의 토대 위에서 명칭이나 활동이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대응하며 민족주의적 성격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환하였다. 이는 193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이 침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⁷⁰⁾

1930년대 지하조직을 통해 활동하던 학생 단체는 1940년대에 독립군적 조직으로 변화하였다. 이 같은 조직에는 사회 인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⁷¹⁾ 1940년대에 들어서 학생 조직에 독립군적 요소가 해의 독립운동 세력과 연결되지 않고서도 자생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의 독립운동

64) 이만열, 「1930년대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총론편 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p.280.

65) 申采浩, 「浪客의 新年漫筆」, 『東亞日報』 1925. 1. 2(『단재신채호전집』 제6권, pp.599~589).

66) 김영범, 「1930년대 독립운동의 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1994, p.441.

67)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6, p.30.

68) 예컨대 ‘京農生の 民族運動’, ‘京城藥學專門秘密結社’ 등이 그러하다.

69) 趙東杰, 「1930년대의 국내독립운동」,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1993, pp.295~297.

70) 이만열, 「1930년대의 민족운동」, 『지역과역사』 제16호, 2005, pp.280~281.

71) 趙東杰, 「1930년대의 국내독립운동」,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1993, pp.295~297.

이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면서 독립을 전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학생운동은 농민, 노동 야학이나,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처럼 문화운동의 성격을 띠는 형태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1929~1934년 사이 실시된 양대 신문사의 운동은 단순한 문맹퇴치라는 계몽운동이 아니었다. 이는 일제의 가혹한 민족말살정책에 맞서 일제의 식민지 언어정책을 패퇴시키고, 우리 손으로 마련한 과학적인 한글맞춤법을 바탕으로 민족문자를 확립 발전시킨 민족운동이었다.⁷²⁾

요컨대 학생운동은 사회운동의 성격을 지녔든 문화운동의 성격을 지녔든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4. 독립의 전망과 건국동맹

한국독립운동사에서 1937년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 이 해, 국내의 한민족들은 독립에의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맞보아야만 하였다.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6사장 김일성이 이끄는 유격대는 6월 4일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김일성은 보천보 전투의 승리를 ‘생이별을 당한 어머니와 그 자식들의 상봉과 같은 사변’으로, ‘망국사의 흐름을 광복으로 돌려놓은 결정적 계기의 하나’라고 자평하였다.⁷³⁾ 물론 북한에서는 보천보 전투를 ‘우리 민족의 반일정신을 최상의 높이에서 과시한 역사적 사변’으로 치켜세우고 있다.⁷⁴⁾

보천보 전투는 규모나 전과 면에서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1937년이라는 시기에 김일성이 이끄는 유격부대가 국내로 들어와 갑산지역의 한인조국광복회와 연계하여 투쟁을 벌이고 독립을 외쳤다는 데에서 그 의의는 작지 않다.⁷⁵⁾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과 희망은 잠시였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하며 식민지 통제를 악랄하게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과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국민징용령 등 일련의 전시 법령들이 독립운동의 기반을 철저히 파괴하고자 하였다. 1942년의 조선어학회 사건은 한민족말살의 상징적 탄압이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1930년대 후반부터 침체하는 양상을 보이던 학생운동은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며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었다.⁷⁶⁾

1940년대 들어 세계대전의 발발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며 국외 독립운동의 객관적 조건은 유리하

72) 慎鍾廈, 「1930년대 문자보급운동과 브·나로드운동」, 『韓國學報』 제120집, 2005, pp.128~132.

73)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6,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149.

74) 허중호, 「보천보 전투는 우리 민족의 반일정신을 최상의 높이에서 과시한 역사적 사변」, 『조선 민족 항일투쟁과 민족주의 문제』, 보천보 전투 승리 70돌 기념 평양국제학술토론회 발표 요지문, 2007, pp.11~15.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지휘한 부대를 조선인민혁명군이라 주장하고 있고, 보천혁명박물관에는 조선인민혁명군사령관 김일성 명의의 포고문(1937. 6. 1)이 전시되어 있다.

75)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을유문화사, 2000, pp.43~44.

76) 이만열, 「1930년대의 민족운동」, 『지역과역사』 제16호, 2005, p.281.

게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국외 독립운동의 지역적 기반이 중경과 연안으로 이동하고, 독립운동의 양대 세력 간 재편이 있었다. 독립운동 세력의 재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⁷⁷⁾ 즉, 국내 독립운동은 중일전쟁 이후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나, 국외의 독립운동은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⁷⁸⁾

1940년의 독립운동을 국외에서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이 이끌었다면, 국내에서는 조선건국동맹이 조직되어 광복에 대비하였다. 여운형은 1941년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자, 일제의 패망을 전망하며 1942년부터 전국적 독립운동 단체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1943년 8월 여운형 등은 건국동맹 조직의 준비 단계에서 조선민족해방연맹을 결성하였다.⁷⁹⁾

건국동맹은 1944년 8월 조직되었다. 여기에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동참하여 독립운동사에서 최후의 연합전선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두 달 만인 10월에는 중앙과 지방의 조직체제도 갖췄고, 해외 주재 연락 책임자도 정하였다. 건국동맹은 철저한 비밀결사 조직이었으나, 1945년 8월 초순까지 전위 조직인 농민동맹을 포함하여 맹원이 7만에 달하였다. 건국동맹은 독립을 이루어 내기 위해 다양한 국내 투쟁을 계획하였으나, 국외 독립운동 단체와도 연계를 모색하였다. 그들은 만주에 군대 편성 계획을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연안의 무정과 연락을 취하며 조선의용군과 협동전선을 모색하였다. 또한 임시정부에 국내 사정을 알리고 협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연락원을 파견하기도 하였다.⁸⁰⁾

건국동맹의 존재는 매우 열악한 국내 조건에서 전국적 비밀결사로 조직되어 해외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하며 광복에 대비하였다는 점에서 1940년대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건국동맹은 국내 독립운동의 최후 조직이었지만, 8·15와 함께 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한 한국현대사의 최초 조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3·1운동은 한국독립운동사의 최고봉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 이후의 독립운동은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독립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방식이나, 국제정세의 변동 등 외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3·1운동은 우리의 힘으로 독립운동의 지형도를 바꾼 획기적인 것이었다.

77) 한시준, 「1940년대 전반기 독립운동의 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1994, pp.448~449.

78) 중일전쟁 이후의 독립운동사를 '終戰期'로 별도로 구분하여 국가총동원체제에서 국내 독립운동은 비록 침체하였으나, 해외 독립전쟁을 중심으로 독립전쟁의 발전기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조동걸,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pp.250~252).

79) 정병준, 「조선건국동맹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연구』 80, 1993, p.100.

80) 慎鍾廈, 「建國同盟의 민족독립운동」, 『3·1運動과 獨立運動의 社會史』,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508~511.

일제의 직접 통치하에 놓여 있던 국내의 독립운동은 국외의 독립운동과는 커다란 조건의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립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총력적으로 전개되었다. 운동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농민·노동자·학생·청년·여성운동으로, 운동 계열을 기준으로 하면 사회운동·경제운동·문화운동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세분하면 사회운동에는 여성운동과 형평운동이, 경제운동에는 물산장려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 문화운동에는 학술(국학)·언론·교육·예술·종교운동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운동 주체나 계열은 독자적인 영역을 지니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국내 독립운동의 양상이 복합성을 지니는 것은 이념의 다원성과, 방법과 전략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는 한국독립운동사의 하한은 8·15를 기점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또는 미래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 까닭은 진정한 독립운동의 완결은 민족통일로서 성취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완결점이 점차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3·1운동과 그 이후 독립운동사의 해석과 평가에 대한 남북의 기준과 결과는 각각 정반대의 지점에서 절반을 외면해 왔다. 우리 스스로가 독립운동의 완결 의무를 방기하고 있지 않나 반성해 본다.

분단과 남북 간 역사인식의 괴리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작금의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과 ‘건국절’ 주장은 일부 세력의 천박한 역사인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충위가 커다란 역사인식의 단층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인식이 독립운동사에 대한 오해와, 특정 목적을 위한 의도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러한 그릇된 역사인식을 불식시키지 않고 3·1운동과 한국독립운동의 민족사적 의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한 논의에 불과하며, 더구나 민족통일을 운위하는 것은 위선의 위선일 뿐이다.

〈참고문헌〉

1. 자료

『獨立新聞』

『東亞日報』

朴殷植, 『白巖朴殷植全集』, 동방미디어, 2002.

申采浩, 『단재신채호전집』,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8.

國史編纂委員會, 『韓日關係史料集』(『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 2005.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6.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みすず書房, 1996.

姜德相, 『現代史資料』, 29, みすず書房, 1972.

2. 논저

- 김경일, 『일제하 노동운동사』, 창작과 비평사, 1992.
- _____, 「일제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 『東洋學』 제41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 金明久, 「1920년대 국내 부르주아 민족운동 우파 계열의 민족운동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0집, 2002.
- 김영범, 「1930년대 독립운동의 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1994.
- 김용달, 「일제의 농업정책과 농민운동」, 『東洋學』 제41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 김호일, 「1920년대 독립운동의 양상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사전』 총론편 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 金喜坤, 「3·1운동과 민주공화제 수립의 세계사적 의의」,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8집, 2009.
- 盧榮澤, 「民立大學 設立運動 研究」, 『國史館論叢』 제11집, 1990.
- 박걸순, 「3·1運動期 國內 秘密結社運動에 대한 試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1988.
- _____, 「1920년대 초 국내 무장투쟁단체의 활동과 추이」,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1989.
- _____, 「大韓統義府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집, 1990.
-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서 편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하)』, 국가보훈처, 1999.
- _____, 『植民地 시기의 歷史學과 歷史認識』, 경인문화사, 2004.
- _____, 『국학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을유문화사, 2000.
- 慎鏞廈, 「韓國 國內 民族獨立運動의 特徵」,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 _____, 「三·一運動의 社會史(下)」, 『韓國學報』 제31집, 1993.
- _____, 「建國同盟의 민족독립운동」, 『3·1運動과 獨立運動의 社會史』,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_____, 『日帝強占期 韓國民族史(上)』,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慎鏞廈, 「1930년대 문자보급운동과 브·나로드운동」, 『韓國學報』 제120집, 2005.
- _____, 『신간회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 이균영, 「192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1994.
- 이만열, 「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 『지역과 역사』 제16호, 부경역사연구소, 2005.
- 李浚植, 「사회주의 민족운동과 대한민국 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8집, 2009.
- 임경석, 「일제하 공산주의자들의 국가건설론」, 『대동문화연구』 제27집, 1992.
- 張錫興, 「1920년대 초 國內 秘密結社運動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집, 1993.

- _____, 「3·1운동과 국내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3집, 1999.
- _____, 『6·10만세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정병준, 「조선건국동맹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연구』 80, 1993.
- 趙東杰,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
- _____, 「獨立運動의 理解와 論理」, 『韓國近代史의 試鍊과 反省』, 지식산업사, 1989.
- _____, 「1930년대의 국내독립운동」, 『韓國民族主義의 發展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93.
- _____, 「1930·40년대의 국학과 민족주의」, 『人文科學研究』 창간호, 同德女子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95.
- _____, 「丹齋 申采浩의 삶과 遺訓」, 『韓國史學史學報』 3, 2001.
- _____,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최기영, 「일제강점기 國學의 발달」, 『식민지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 한울 아카데미, 2003.
- 한시준, 「1940년대 전반기 독립운동의 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1994.
- 韓詩俊 編, 『大韓民國臨時政府法令集』, 국가보훈처, 1999.
- 韓詩俊, 「대한민국 '건국 60년', 그 역사적 모순과 왜곡」,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6집, 2008.

Abstract

3·1 Movement and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Park, Gul-sun*

3·1 movement is evaluated as the biggest turning point and a good mov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t is from that 3·1 movement had the streamlets get together of secret society struggles to make a big river of total independence movement after 1920s. 3·1 movement made the opportunity to expand the participant clas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o diversify the ideology and the methods.

3·1 movement was the highest authority in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It makes the independence movement after that considerably distinguished. The independence movement cannot help but be influenced by external conditions like the imperial Japan's policy or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ut 3·1 movement was the epochal event which changed the map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for ourselves.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unfolded confronting with the imperial Japan's policy quickly. They had to have the characteristic of secret society thoroughly during the Japanese military rule age of terror and they tried to make the best use of permissible space during cultural politic age of deceiving. When the suppression on Korean people was getting stronger as the imperial Japan expanded and strengthened its war of invasion like Manju invasion, Sino-Japanese War and World War provocation, they had to become more underground but embodied after glorious restoration foreseeing the defeat of the imperial Japan. In this process, they sought for the connection with external independence movement.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under direct reign of the imperial Japan had great different conditions with external independence movement. Despite of this,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unfolded with all its power and with various forms. We can classify it into subject of movement as the farmer, labor, student, young generation and women movement and into the class of movement as social movement, economic movement and cultural movement; the social movement can include feminist movement and equity movement, the economic movement can include Mulsan-Jangryeo

* Assistant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oondong(Movement of Local Products Encouragement) and Consumers' Cooperative Activities and the cultural movement can include the study of culture and heritage of Korea, media, education, art and religion movement. The subjects and the classes often had their own independent areas but there were many cases duplicated or complicatedly unfolded. Like this, the reason that the aspects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have many characters is from the multiplicity of ideology, the diversity of the method and strategy.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consistently unfolded after 3·1 movement tried to connect with external independence movement and eventually it became the power to get the independence.

[Key Words] 3·1 Movement,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Secret Society, Front Lines of National Cooperation for Liberation, Cultural Movement, Student Movement, National Foundation Alliance.